

아침 해가 돋을 때 / 찬 송 가 552장

-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 한번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찬 송 가 550장

-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행복하고
즐거운
성날되세요

설명절 가정예배

2026

전주강림교회
섬기는 목사 이경준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52장 ----- 다 같이

기도 ----- 말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62편 1절-7절 ----- 다 같이

-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 4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 6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말 씀 ----- 하나님만 바라라 ----- 다 같이

찬 송 ----- 찬송가 550장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감사하던 설 명절입니다. 설을 맞아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한해 우리가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있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4:7절에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조금 물기만 있어도 다시 생명이 움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에게서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실만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는 귀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